

|        |             |
|--------|-------------|
| The 논술 | 2016 연세대 인문 |
|--------|-------------|

|        |   |
|--------|---|
| <문제 1> |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문제 2> |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제시문 (가)

운이 열한 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엘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운을 보고 허 노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흔찮을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각목이었다. 발바닥 절반만 한 넓이의 각목을 땅에 깔아 놓고 손을 뒤로 모아 잡은 다음 몸을 곳곳이 하여 그 위를 왕래하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는 빨리, 그랬다가는 다시 천천히, 그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었을 때 운은 눈을 싸매고 그때까지의 과정을 한 번 더 되풀이했다. 다음에는 그 각목이 줄로 바뀌고, 그 줄이 드디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운은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이미 그는 언뜻 보기에 허 노인과 닮았듯이 줄을 탔다. 그러나 허 노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안 보였다. 하지만 운은 그 허 노인에게 선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털었다. “아버지, 저도 이젠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운은 까닭을 몰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어떠냐,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 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나”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흠, 아직도 객기가 있어…….”

허 노인은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 운은 또 아무 대꾸도 못 하고 줄로 올라갔다.

### 제시문 (나)

뉴턴이 자연철학의 원리에 관한 그의 불후의 저작 속에서 논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아무리 위대한 두뇌가 필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예술을 위한 모든 규칙이 아무리 상세하고 또 그 모범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 재기발랄한 시 짓기를 배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뉴턴은 그가 기하학의 초보적 원리로부터 그의 위대하고 심원한 발견에 이르기까지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든 단계를,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따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호메로스나 빌란트와 같은 시인은 상상이 넘치는 동시에 사상이 풍부한 그의 이념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리에 떠올라 정리되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시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위대한 발견자라 할지라도 고군분투하는 모방자와 단지 정도상의 차이로 구별될 따름이지만, 자연으로부터 미적 예술에 대한 천부의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과는 아예 종적으로 구별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류에게 그토록 많은 도움을 준 저 위대한 학자들을, 미적예술에 대한 재능 덕택에 자연의 총아가 된 사람들보다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학자의 재능은 인식이 끊임없이 진보하여 더욱 완벽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에 의존하는 온갖 종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그 점에서는 학자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영예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보다 나은 점도 있는 것이다. 학문적 지식과 달리 예술의 기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손으로부터 각 개인에게 직접 부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교는 그 사람과 더불어 사멸하며, 자연이 훗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자질을 부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제시문 (다)

어린 모차르트는 그의 경쟁자인 누나를 흉내 내어 건반을 두드리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자기 몫을 얻으려 했을 수 있다. 아버지는 스피넷\*의 소리에,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 연주에 놀라우리만치 일찍 관심을 보이는 아들에게, 이전까지는 누나에게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랑과 관심을 규칙적인 음악 수업의 형태로 확장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속도와 범위로 음악적 학습 자료를 습득하면서 그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수고에 보답하자, 자식에 대한 그의 애정은 한층 커졌을 것이다. 아버지의 커진 관심은 좀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아이를 격려한다.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감격시킨 것은 아이의 비상한 이해력이었다. 아버지 자신이 이 능력의 발달에,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어린 모차르트의 특출한 음감과 음 기억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진정 하나의 기적처럼 보였다. 그가 세 살 때부터 시작한 체계적 수업은 이런 인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편찬한 악보에 따라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엄밀한 수업이었다. 풍요로운 자극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당사자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모차르트는 분명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음악과의 이른 만남과 꾸준한 접촉, 오랜 기간에 걸친 아버지의 열렬한 교육, 신동으로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힘든 노동을 요했던 이력 등이 재정적인 안정, 신분 상승의 기회, 도사리고 있는 몰락의 위험에 대한 가족의 힘겨운 생존 투쟁과 결합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개인적인 발달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일찍 특정한 방향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은 채, 그 후 점점 더 의도적으로 아이의 동기와 환상의 커다란 흐름을 이 한 노선으로, 즉 음악을 다루는 일로 유도했다. 그가 아들에게 행한 심화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음악, 그리고 명연주가가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었다. 모차르트가 유년기와 그 이후에도 감내해야 했던 음악가로서의 힘든 직업 활동도 그의 발달을 동일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그런 활동이 음악적 전문화의 길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했음은 분명하다. 고된 훈련은 어린 모차르트에게서 일상적 즐거움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렬한 쾌락과 성취감을 가져다주었다.

\* 스피넷: 건반이 달린 현악기의 일종

###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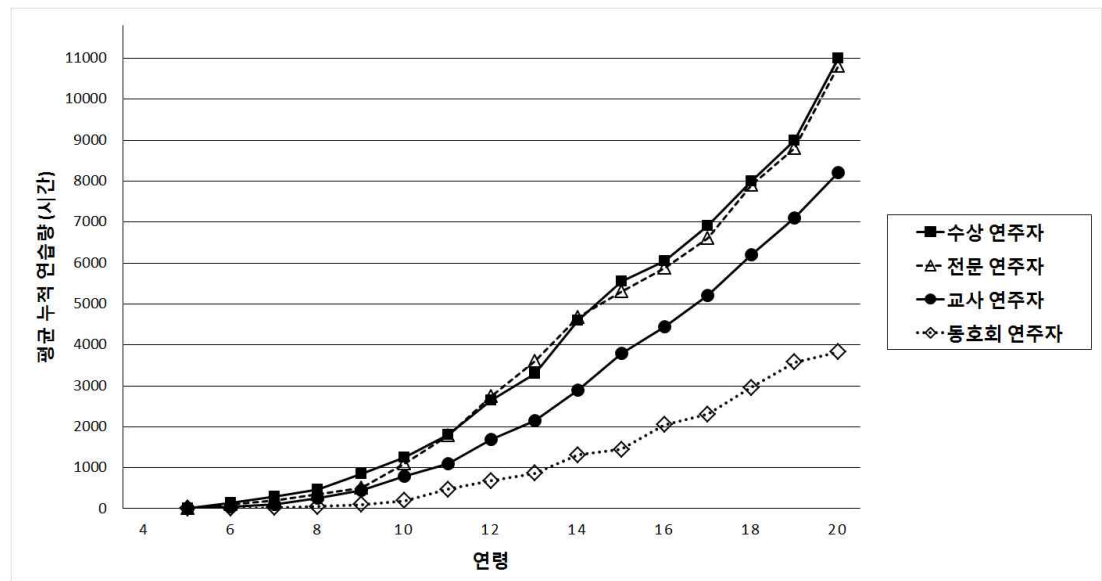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현역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주당 평균 연습시간을 20세 시점까지 누적시켜 제시하고 있다. 그림은 전체 연주자들을 연주 수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내 평균을 보여준다. 상위 세 집단은 같은 음악 대학을 나온 연주자들이다.

(1) 수상 연주자: 가장 우수한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단독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연주자들

(2) 전문 연주자: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교향악단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

(3) 교사 연주자: 음악 대학 졸업 후 지역 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하며 중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연주자들

(4) 동호회 연주자: 음악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바이올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취미활동으로 연주를 하는 동호회 소속 연주자들



|   |   |
|---|---|
| 1. 1번 문제 풀이   |   |
|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 1) 논제이해 및 전략 구상   |   |
| 2016 인문 논술은 전형적인 연세대 1번 문제인 ‘삼자비교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자비교형의 개요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술적 성취’] |   |
| 2)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   |
|   | <p>제시문 내용</p> <p>운이 열한 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엘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운을 보고 허 노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흔찮을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각목이었다. 발바닥 절반만 한 넓이의 각목을 땅에 깔아 놓고 손을 뒤로 모아 잡은 다음 몸을 곳곳이 하여 그 위를 왕래하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는 빨리, 그랬다가는 다시 천천히, 그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었을 때 운은 눈을 싸매고 그때까지의 과정을 한 번 더 되풀이했다. 다음에는 그 각목이 줄로 바뀌고, 그 줄이 드디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운은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이미 그는 언뜻 보기에 허 노인과 다름없이 줄을 탔다. 그러나 허 노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 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안 보였다. 하지만 운은 그 허 노인에게 선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p> <p>(가) 참다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털었다. <b>“아버지, 저도 이젠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b>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b>“안 되겠다!”</b></p> <p>운은 까닭을 물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어떠냐,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b>“흠, 아직도 객기가 있어…….”</b></p> <p><b>허 노인은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 운은 또 아무 대꾸도 못 하고 줄로 올라갔다.</b></p> <p>기준에 따른 독해</p> <p>(가)의 허 노인은 운에게 줄타기라는 예술 행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7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줄타기를 반복적으로 수행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운은 이러한 단조롭게 반복되는 수행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허 노인에게 반항하기도 하지만 허 노인은 엄격한 태도를 유지한다. 허 노인은 운의 재능, 욕망, 목표에 대한 열의를</p> |

|     |   |
|-----|---|
|     | <p>격려하고 긍정하기보다는 제한하고 제약하며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로 운을 훈련 시킨다.</p>   |
| (나) | <p>제시문 내용</p> <p>뉴턴이 자연철학의 원리에 관한 그의 불후의 저작 속에서 논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아무리 위대한 두뇌가 필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예술을 위한 모든 규칙이 아무리 상세하고 또 그 모범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 재기발랄한 시 짓기를 배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뉴턴은 그가 기하학의 초보적 원리로부터 그의 위대하고 심원한 발견에 이르기까지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든 단계를,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따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호메로스나 빌란트와 같은 시인은 상상이 넘치는 동시에 사상이 풍부한 그의 이념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리에 떠올라 정리되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시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위대한 발견자라 할지라도 고군분투하는 모방자와 단지 정도상의 차이로 구별될 따름이지만, 자연으로부터 미적 예술에 대한 천부의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과는 아예 종적으로 구별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류에게 그토록 많은 도움을 준 저 위대한 학자들을, 미적 예술에 대한 재능 덕택에 자연의 총아가 된 사람들보다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학자의 재능은 인식이 끊임없이 진보하여 더욱 완벽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에 의존하는 온갖 종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그 점에서는 학자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영예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보다 나은 점도 있는 것이다. <b>학문적 지식과 달리 예술의 기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손으로부터 각 개인에게 직접 부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b> 따라서 그러한 기교는 그 사람과 더불어 사멸하며, 자연이 훗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자질을 부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p> |
|     | <p>기준에 따른 독해</p> <p>(나)는 학문적 진보와 지식의 축적은 개념적 사고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도 명백히 언어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술적 성취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어에 의한 규칙의 분석적 설명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고 본다. 예술적 성취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이 일부 개인에게만 부여한 천부적 재능이라고 말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가)의 허노인과 차이점이 있다.</p>   |
|     | <p>제시문 내용</p> <p>어린 모차르트는 그의 경쟁자인 누나를 흉내 내어 건반을 두드리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자기 몫을 얻으려 했을 수 있다. 아버지는 스피넷*의 소리에,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 연주에 놀라우리만치 일찍 관심을 보이는 아들에게, 이전까지는 누나에게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랑과 관심을 규칙적인 음악 수</p>   |
| (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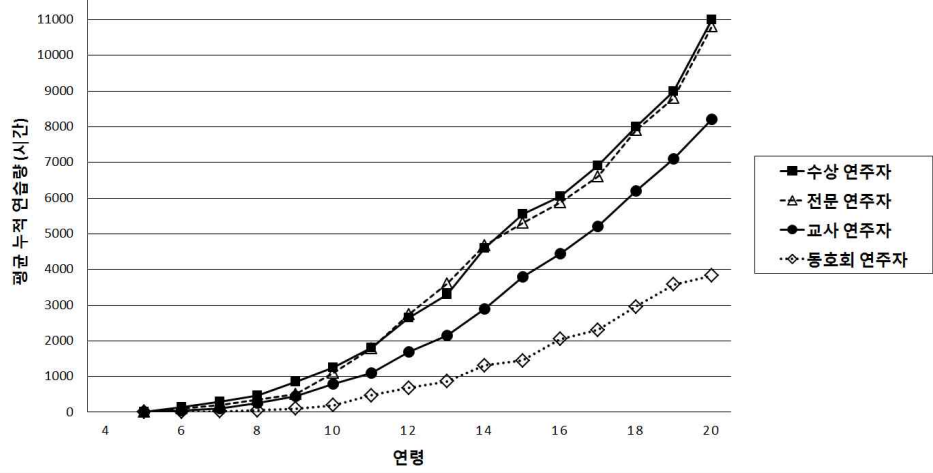
|                        |   |
|------------------------|---|
|                        | <p>업의 형태로 확장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속도와 범위로 음악적 학습 자료를 습득하면서 그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수고에 보답하자, 자식에 대한 그의 애정은 한층 커졌을 것이다. 아버지의 커진 관심은 좀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아이를 격려한다.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감격시킨 것은 아이의 비상한 이해력이었다. 아버지 자신이 이 능력의 발달에,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어린 모차르트의 특출한 음감과 음 기억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진정 하나의 기적처럼 보였다. 그가 세 살 때부터 시작한 체계적 수업은 이런 인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편찬한 악보에 따라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엄밀한 수업이었다. 풍요로운 자극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당사자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모차르트는 분명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음악과의 이른 만남과 꾸준한 접촉, 오랜 기간에 걸친 아버지의 열렬한 교육, 신동으로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힘든 노동을 요했던 이력 등이 재정적인 안정, 신분 상승의 기회, 도사리고 있는 몰락의 위협에 대한 가족의 힘겨운 생존 투쟁과 결합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개인적인 발달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일찍 특정한 방향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은 채, 그 후 점점 더 의도적으로 아이의 동기와 환상의 커다란 흐름을 이 한 노선으로, 즉 음악을 다루는 일로 유도했다. 그가 아들에게 행한 심화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음악, 그리고 명연주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었다. 모차르트가 유년기와 그 이후에도 감내해야 했던 음악가로서의 힘든 직업 활동도 그의 발달을 동일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그런 활동이 음악적 전문화의 길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했음은 분명하다. 고된 훈련은 어린 모차르트에게서 일상적 즐거움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렬한 쾌락과 성취감을 가져다주었다.</p> <p>* 스피넷: 건반이 달린 현악기의 일종</p> <p>기준에 따른 독해</p> <p>(다)는 모차르트가 반복 수행, 천부적 재능에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까지 더해져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고, 세 살 때부터 체계적 수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아버지의 교육열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모차르트를 엄격히 질책하기보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엄격한 훈련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가)의 허 노인과 차이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p> |
| 3)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       |   |
| [삼자비교형 - 3문단의 구조]      |   |
| 1문단 - 2문장 (2문장 이내의 서론) |   |
|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   |
|                        | <p>예술적 성취는 관점에 따라 반복 수행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재능에 의한 것일 수도</p>  |

|  |
|--|
| 있으며 반복 수행, 재능, 가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
| <p>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p> <p>(가), (나), (다)는 예술적 성취에 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p>   |
| 2문단  |
| <p>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p> <p>(가)는 예술적 성취를 위해 반복 수행만을 고려하는 입장인데 반해 (나), (다)는 재능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차이점이 있다.</p>  |
| <p>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p> <p>(가)의 허 노인은 운에게 줄타기라는 예술 행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7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줄타기를 반복적으로 수행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운은 이러한 단조롭게 반복되는 수행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허 노인에게 반항하기도 하지만 허 노인은 엄격한 태도를 유지한다. 허 노인은 운의 재능, 욕망, 목표에 대한 열의를 격려하고 긍정하기보다는 제한하고 제약하며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로 운을 훈련시킨다.</p>  |
| <p>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p> <p>(나)는 학문적 성취와 달리 예술적 성취의 영역에서는 천부적 재능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는 어린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천부적 재능을 보여준다.</p>   |
| 3문단  |
| <p>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p> <p>하지만 (나)는 천부적 재능만을 예술적 성취의 요소로서 고려하는데 반해 (다)는 여기에 더해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까지 고려한다는데 차이가 있다.</p>  |
| <p>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p> <p>먼저, (나)는 학문적 진보와 지식의 축적은 개념적 사고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도 명백히 언어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술적 성취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어에 의한 규칙의 분석적 설명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고 본다. 예술적 성취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이 일부 개인에게만 부여한 천부적 재능이라고 말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가)의 허노인과 차이점이 있다.</p> |
| <p>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B)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p> <p>(다)는 모차르트가 반복 수행, 천부적 재능에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까지 더해져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고, 세 살 때부터 체계적 수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p>   |

|   |  |
|---|--|
| <p>아버지의 교육열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모차르트를 엄격히 질책하기보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엄격한 훈련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가)의 허 노인과의 차이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p> |  |
| 4) 완성된 예시답안   |  |
| 1문단   | <p>예술적 성취는 관점에 따라 반복 수행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재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반복 수행, 재능, 가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가), (나), (다)는 예술적 성취에 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p>   |
| 2문단   | <p>(가)는 예술적 성취를 위해 반복 수행만을 고려하는 입장인데 반해 (나), (다)는 재능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차이점이 있다. (가)의 허 노인은 운에게 줄타기라는 예술 행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7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줄타기를 반복적으로 수행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운은 이러한 단조롭게 반복되는 수행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허 노인에게 반항하기도 하지만 허 노인은 엄격한 태도를 유지한다. 허 노인은 운의 재능, 욕망, 목표에 대한 열의를 격려하고 긍정하기보다는 제한하고 제약하며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로 운을 훈련시킨다. (나)는 학문적 성취와 달리 예술적 성취의 영역에서는 천부적 재능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는 어린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천부적 재능을 보여준다.</p>  |
| 3문단   | <p>하지만 (나)는 천부적 재능만을 예술적 성취의 요소로서 고려하는데 반해 (다)는 여기에 더해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까지 고려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먼저, (나)는 학문적 진보와 지식의 축적은 개념적 사고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도 명백히 언어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술적 성취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어에 의한 규칙의 분석적 설명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고 본다. 예술적 성취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이 일부 개인에게만 부여한 천부적 재능이라고 말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가)의 허노인과 차이점이 있다. (다)는 모차르트가 반복 수행, 천부적 재능에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까지 더해져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고, 세 살 때부터 체계적 수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아버지의 교육열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모차르트를 엄격히 질책하기보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엄격한 훈련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가)의 허 노인과의 차이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p> |



|  |  |
|--|--|
| 3. 2번 문제 풀이  |  |
|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 1) 개요작성  |  |
| ①  | (라)의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하되, 후에 (가)~(다)의 논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핵심만을 서술할 것.  |
| ②  | (라)를 통해 (가)의 주장을 평가할 것.  |
| ③  | (라)를 통해 (나)의 주장을 평가할 것.  |
| ④  | (라)를 통해 (다)의 주장을 평가할 것.  |
| 2) 제시문 독해  |  |
| (라)  | 제시문 내용   |
|  | 아래 그림은 현역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주당 평균 연습시간을 20세 시점까지 누적시켜 제시하고 있다. 그림은 전체 연주자들을 연주 수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내 평균을 보여준다. 상위 세 집단은 같은 음악 대학을 나온 연주자들이다. |
|  | (1) 수상 연주자: 가장 우수한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단독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연주자들   |
|  | (2) 전문 연주자: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교향악단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  |
|  | (3) 교사 연주자: 음악 대학 졸업 후 지역 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하며 중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연주자들  |
| (4) 동호회 연주자: 음악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바이올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취미활동으로 연주를 하는 동호회 소속 연주자들 |  |



기준에 따른 독해

(라)는 바이올린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과 노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누적 연습시간이 많을수록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좋아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습량의 차이가 최상위급에서, 즉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사이에서는 별로 없어, 최상위급에서 수준 차는 연습 이외의 요인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음악 대학을 나온 상위 세 집단은 최소한 교사로서 바이올린 연주를 가르칠 수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최상위급 성취가 아닌 수준에서는 예술도 학문처럼 교육적 요소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상위 세 집단은 모두 같은 음악 대학 출신으로 연습량 이외의 환경적 요인은 비교적 동질적인 반면에 하위에 있는 동호회 연주자 집단과는 환경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3) (라)로써 (가), (나), (다)에 대해 평가

(가)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반복적 수행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라)의 그래프를 보면 수상 연주자 및 전문 연주자의 평균 누적 연습량이 교사 연주자나 동호회 연주자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의 주장이 일정 부분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는데, (가)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간 평균 누적 연습량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예술적 성취의 결과가 달라진 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인과관계 분석의 관점에서 주어진 그래프만으로는 연습량이 연주 수준에 인과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확신하기 곤란한데, 상위 수준의 연습량이 더 많다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해서 연주 수준이 높아졌다고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연주 수준을 높이는 제 3의 원인이 더 많은 연습량도 감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나)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천부적 재능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전달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가)가 설명하지 못했던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간의 예술적 성취의 결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기에 일정 부분 타당한 견해이다. 그러나 상위 두 집단에 해당하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또한 일 만 시간 이상의 반복 수행 및 연습이 필요했던 점, 반복 수행 및 연습량에 따라 교사 연주자 및 동호회 연주자가 앞선 상위 두 집단과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였던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 대

|            |  |
|------------|--|
|            | 학을 나온 상위 세 집단이 최소한 교사로서 바이올린 연주를 가르칠 수 있었던 점 또한 설명하지 못한다.  |
| (다)        | (다)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반복적 수행, 천부적 재능에 더해 심리적, 사회적, 가정적, 환경적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의 견해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간 차이가 단순히 연습이 연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일방향적 관계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같은 음악 대학을 나온 상위 세 집단과 달리 동호회 연주자가 예술적 성취의 결과가 비교적 미미했던 것은 연습량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4) 답안 작성하기 |  |
| 1문단        | (라)는 바이올린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과 노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누적 연습시간이 많을수록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좋아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습량의 차이가 최상위급에서, 즉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사이에서는 별로 없어, 최상위급에서 수준 차는 연습 이외의 요인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음악 대학을 나온 상위 세 집단은 최소한 교사로서 바이올린 연주를 가르칠 수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최상위급 성취가 아닌 수준에서는 예술도 학문처럼 교육적 요소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상위 세 집단은 모두 같은 음악 대학 출신으로 연습량 이외의 환경적 요인은 비교적 동질적인 반면에 하위에 있는 동호회 연주자 집단과는 환경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
| 2문단        | (가)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반복적 수행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라)의 그래프를 보면 수상 연주자 및 전문 연주자의 평균 누적 연습량이 교사 연주자나 동호회 연주자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의 주장이 일정 부분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는데, (가)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간 평균 누적 연습량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예술적 성취의 결과가 달라진 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인과관계 분석의 관점에서 주어진 그래프만으로는 연습량이 연주 수준에 인과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확신하기 곤란한데, 상위 수준의 연습량이 더 많다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해서 연주 수준이 높아졌다고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연주 수준을 높이는 제 3의 원인이 더 많은 연습량도 감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
| 3문단        | (나)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천부적 재능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전달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가)가 설명하지 못했던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간의 예술적 성취의 결과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에 일정 부분 타당한 견해이다. 그러나 상위 두 집단에 해당하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또한 일 만 시간 이상의 반복 수행 및 연습이 필요했던 점, 반복 수행 및 연습량에 따라 교사 연주자 및 동호회 연주자가 앞선 상위 두 집단과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였던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 대학을 나온 상위 세 집단이 최소한 교사로서 바이올린 연주를 가르칠 수 있었던 점 또한 설명하지 못한다.  |
| 4문단        | (다)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반복적 수행, 천부적 재능에 더해 심리적, 사회적, 가정적, 환경적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

|   |
|---|
| (다)의 견해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간 차이가 단순히 연습이 연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일방향적 관계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같은 음악 대학을 나온 상위 세 집단과 달리 동호회 연주자가 예술적 성취의 결과가 비교적 미미했던 것은 연습량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        |             |
|--------|-------------|
| The 논술 | 2016 연세대 사회 |
|--------|-------------|

|        |   |
|--------|---|
| <문제 1> | 제시문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문제 2> | 제시문 (라)의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제시문 (가)

세익스피어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그렇게 힘 있게 만든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에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즉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정직함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진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세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무엇보다 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그리하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수 있으리니.

#### 제시문 (나)

우리는 내면적 자아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의 정신이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느낌, 지각, 행동의 차이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만든 즉각적인 인상들을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러한 차이들을 바로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인상과 외양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삼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즉각적인 인상들을 바로 우리의 인간됨으로 여긴다. 인간됨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 그 자체이다. 게다가 사람의 외양이 변화하면 그 사람 자체도 변한다. 외양은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인간됨은 외양에 내재해 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베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알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동과 같이 세세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외양은 내면

적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자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외양은 오히려 사적인 느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자아는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난 외양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다.

#### 제시문 (다)

양처보(陽處父)\*가 위(衛)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읍(甯邑)을 지나다가 영씨(嬴氏)의 집에 묵게 되었다. 영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내 오래도록 군자다운 이를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려!”

그리고 양처보가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섰다.

영씨는 양처보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온산(溫山)까지 가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아내가 물었다.

“찾던 사람을 찾았다 하시더니, 그를 따라가지 않으시다니. 집이 그리도 그리우셨나요”

그러자 영씨가 대답했다.

“내가 그의 걸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하였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싫어하게 되었소. 걸모습이란 마음이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말이라는 건 그 걸모습의 기틀이오. 마음이 그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라면, 말은 자신의 무늬라고 할 수 있소. 말의 무늬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마음과 말과 걸모습이 잘 부합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들이 괴리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소.

양처보의 걸모습은 아주 번듯한데, 그의 말은 들떠 있으니 이는 진정한 그가 아닌 것이오. 내면이 부족한데도 겉으로는 강한척 한다면, 이는 그 마음을 거스르고, 결국 그 마음도 바뀌고 말게 되오. 또 내면과 걸모습이 같더라도, 말이 그것을 거스른다면 그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것이오. 무릇 말로써 그 믿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을 중시하기를 기틀 잡고 있듯이 해야 하며, 오래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야 하는 것이니 어찌 경시할 수 있겠소! 이제 양처보의 마음이 어떤지 훤히 알겠소. 걸모습을 꾸며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고집스런 성격에다 재주만을 중시하며, 근본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욱보이는 그런 자는 못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자요. 그를 따라 다니면 이로운 것 없이, 그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떠나온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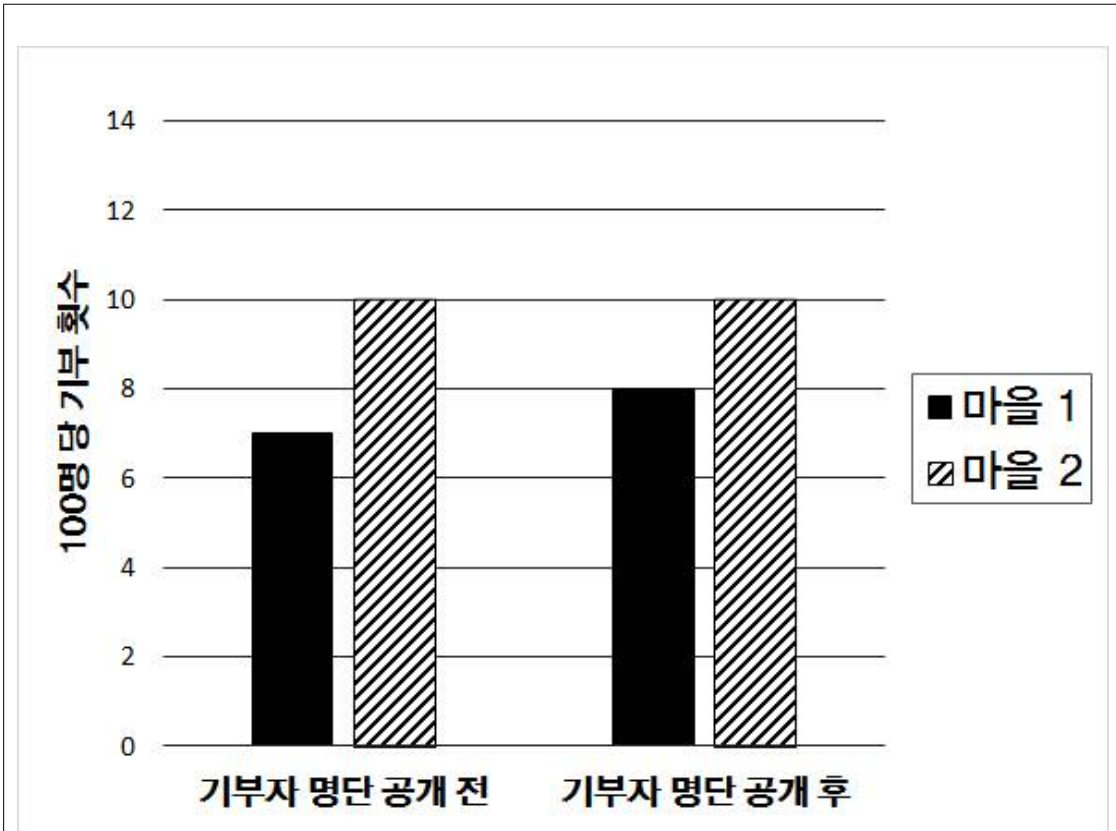
1년 뒤 나라 안에 난이 일어났는데, 양처보는 결국 그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양처보(陽處父)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관리이며, ‘父’는 이름에서 ‘보’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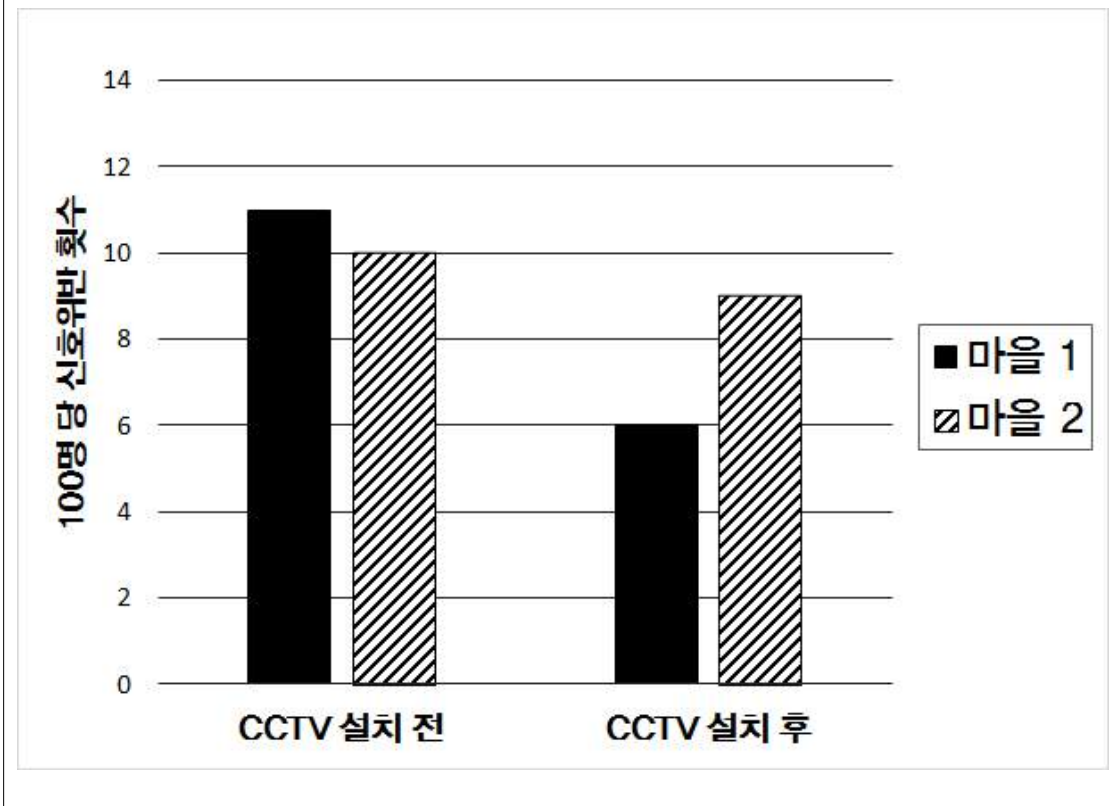
#### 제시문 (라)

다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간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실험결과이다. 인구수와 기타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두 마을(마을 1, 마을 2)을 선정하였다. 특정일부터 각 마을의 기부자 명단을 해당 마을신문에 공개하였고, 도로에는 두 마을 모두 CCTV를 설치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이후 3개월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



<그림 2>



|  |  |
|--|--|
| 1. 1번 문제 풀이  |  |
| 제시문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 1) 논제이해 및 전략 구상  |  |
| 2016 사회 논술은 전형적인 연세대 1번 문제인 '삼자비교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자비교형의 개요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 |  |
| 2)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  |
| (가)  | 제시문 내용   |
|  | 세익스피어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그렇게 힘 있게 만든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에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즉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정직함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진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세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
|  | 무엇보다 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br>그리하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br>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수 있으리니.  |
|  | 기준에 따른 독해  |
|  | (가)는 세익스피어의 시구를 인용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한 외적 상황에 좌우되는 진실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서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며, 타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 타인까지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
| (나)  | 제시문 내용   |
|  | 우리는 내면적 자아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의 정신이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느낌, 지각, 행동의 차이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만든 즉각적인 인상들을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러한 차이들을 바로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인상과 외양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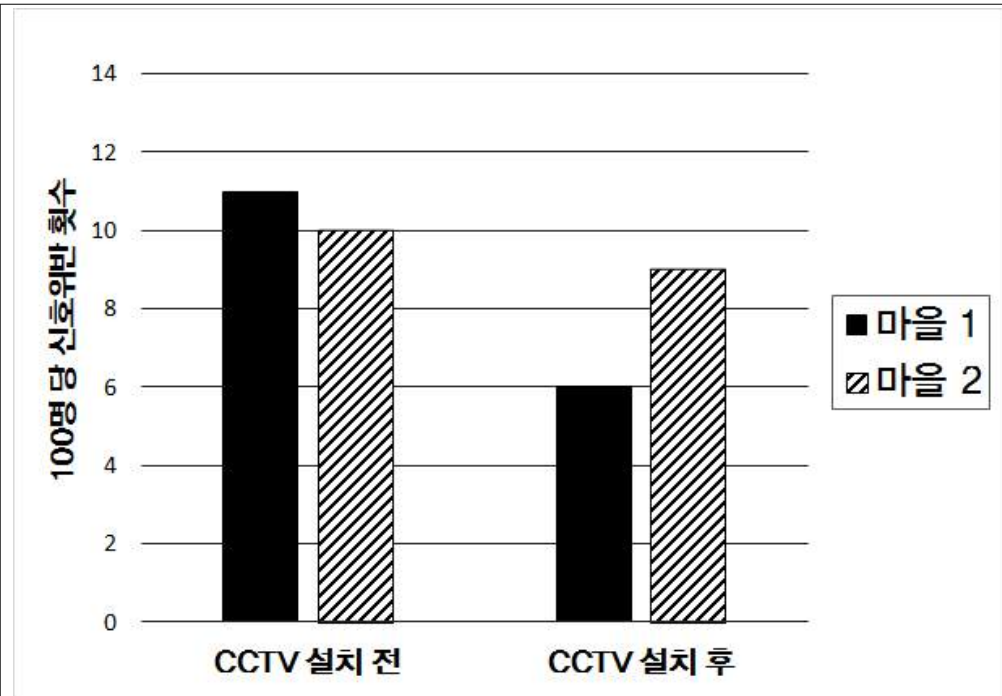
|            |  |
|------------|--|
|            | <p>타인의 시선을 거울삼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즉각적인 인상들을 바로 우리의 인간됨으로 여긴다. 인간됨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 그 자체이다. 게다가 사람의 외양이 변화하면 그 사람 자체도 변한다. 외양은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인간됨은 외양에 내재해 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베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알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동과 같이 세세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외양은 내면적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자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외양은 오히려 사적인 느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자아는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난 외양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다.</p>   |
|            | <p>기준에 따른 독해</p>   |
|            | <p>(나)는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그 내면에서 찾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면서 내면적 자아는 외면적 자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 자아를 통해서만 표현된다고 말한다. 외면적 자아의 차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시선은 나의 인간됨을 이해하고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p>  |
| <p>(다)</p> | <p>제시문 내용</p> <p>양처보(陽處父)*가 위(衛)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읍(甯邑)을 지나다가 영씨(嬴氏)의 집에 묵게 되었다. 영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p> <p>“내 오래도록 군자다운 이를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려!”</p> <p>그리고 양처보가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섰다.</p> <p>영씨는 양처보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온산(溫山)까지 가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아내가 물었다.</p> <p>“찾던 사람을 찾았다 하시더니, 그를 따라가지 않으시다니. 집이 그리도 그리우셨나요?”</p> <p>그러자 영씨가 대답했다.</p> <p>“내가 그의 걸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하였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싫어하게 되었소. 걸모습이란 마음이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말이라는 건 그 걸모습의 기틀이오. 마음이 그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 라면, 말은 자신의 무늬라고 할 수 있소. 말의 무늬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마음과 말과 걸모습이 잘 부합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들이 괴리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소.</p> <p>양처보의 걸모습은 아주 번듯한데, 그의 말은 들떠 있으니 이는 진정한 그가 아닌 것이오. 내면이 부족한데도 겉으로는 강한척 한다면, 이는 그 마음을 거스르고, 결국 그 마음도 바뀌고 말게 되오. 또 내면과 걸모습이 같더라도, 말이 그것을 거스른다면 그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것이오. 무릇 말로써 그 믿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을 중시하기를 기틀 잡고 있듯이 해야 하며, 오래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야 하는 것이니 어찌 경시할 수 있겠소! 이제 양처보의 마음이 어떤지 훤히 알겠소. 걸모습을 꾸며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고집스런 성격에다 재주</p> |

|  |  |   |
|--|--|---|
|  | <p>만을 중시하며, 근본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욱보이는 그런 자는 못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자요. 그를 따라 다니면 이로운 것 없이, 그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떠나온 것이오.”</p> <p>1년 뒤 나라 안에 난이 일어났는데, 양처보는 결국 그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p> <p>* 양처보(陽處父)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관리이며, ‘父’는 이름에서 ‘보’로 읽는다.</p>                             |   |
|  | <p>기준에 따른 독해</p> <p>(다)는 양처보와 영씨의 일화를 통해 언행이 사람의 진정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영씨에 따르면 마음은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고, 말은 그 자신의 무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말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이냐 겉모습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p> |   |
| 3)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   |  |   |
| [삼자비교형 - 3문단의 구조]  |  |   |
| 1문단 - 2문장 (2문장 이내의 서론)   |  |   |
|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사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 혹은 외양 혹은 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td> </tr> </table>  |  | 사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 혹은 외양 혹은 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사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 혹은 외양 혹은 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가), (나), (다)는 모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td> </tr> </table>   |  | (가), (나), (다)는 모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 (가), (나), (다)는 모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   |
| 2문단  |  |   |
| 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가)는 사람의 내면만이 진정성의 원천이자 기준이라고 보는데 반해 (나)와 (다)는 진정성의 요소로서 외양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td> </tr> </table>  |  | (가)는 사람의 내면만이 진정성의 원천이자 기준이라고 보는데 반해 (나)와 (다)는 진정성의 요소로서 외양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
| (가)는 사람의 내면만이 진정성의 원천이자 기준이라고 보는데 반해 (나)와 (다)는 진정성의 요소로서 외양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  |   |
| 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가)는 셰익스피어의 시구를 인용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한 외적 상황에 좌우되는 진실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서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며, 타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 타인까지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td> </tr> </table> |  | (가)는 셰익스피어의 시구를 인용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한 외적 상황에 좌우되는 진실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서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며, 타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 타인까지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
| (가)는 셰익스피어의 시구를 인용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한 외적 상황에 좌우되는 진실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서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며, 타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 타인까지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  |   |
| 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나)는 겉으로 드러난 인상이나 외양이 그 사람이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다)의</td> </tr> </table>  |  | (나)는 겉으로 드러난 인상이나 외양이 그 사람이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다)의  |
| (나)는 겉으로 드러난 인상이나 외양이 그 사람이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다)의   |  |   |

|  |  |
|--|--|
| 영씨는 양처보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한다.   |  |
| 3문단  |  |
| 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   |  |
| 하지만 (나)는 외양만을 진정성의 요소로서 고려하는데 반해 (다)는 내면과 외양에 더해 궁극적으로는 말을 진정성의 요소로서 고려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  |
| 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  |
| (나)는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그 내면에서 찾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면서 내면적 자아는 외면적 자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 자아를 통해서만 표현된다고 말한다. 외면적 자아의 차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시선은 나의 인간됨을 이해하고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 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B)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  |
| (다)는 양처보와 영씨의 일화를 통해 언행이 사람의 진정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영씨에 따르면 마음은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고, 말은 그 자신의 무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말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이자 겉모습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
| 4) 완성된 예시답안  |  |
| 1문단  | 사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 혹은 외양 혹은 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나), (다)는 모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 2문단  | (가)는 사람의 내면만이 진정성의 원천이자 기준이라고 보는데 반해 (나)와 (다)는 진정성의 요소로서 외양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가)는 셰익스피어의 시구를 인용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한 외적 상황에 좌우되는 진실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서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며, 타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 타인까지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나)는 겉으로 드러난 인상이나 외양이 그 사람이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다)의 영씨는 양처보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한다. |
| 3문단  | 하지만 (나)는 외양만을 진정성의 요소로서 고려하는데 반해 (다)는 내면과 외양에 더해 궁극적으로는 말을 진정성의 요소로서 고려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나)는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그 내면에서 찾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면서 내면적 자아는 외면적 자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 자아를 통해서만 표현된다고 말한다. 외면적 자아의 차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시선은 나의 인간됨을 이해하고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는 양처보와 영씨의 일화를 통해 언행이 사람의 진정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영씨에 따                       |

|   |
|---|
| <p>르면 마음은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고, 말은 그 자신의 무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말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이자 겉모습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p> |
|---|

| 3. 2번 문제 풀이   |   |             |             |             |      |   |   |      |    |
|---|---|-------------|-------------|-------------|------|---|---|------|----|
| 제시문 (라)의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             |             |             |      |   |   |      |    |
| 1) 개요작성   |   |             |             |             |      |   |   |      |    |
| ①   | (라)의 자료를 분석하시오.   |             |             |             |      |   |   |      |    |
| ②   | (가)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한 후 (라)를 해석하시오.  |             |             |             |      |   |   |      |    |
| ③   | (나)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한 후 (라)를 해석하시오.  |             |             |             |      |   |   |      |    |
| 2) 제시문 독해   |   |             |             |             |      |   |   |      |    |
| (라)   | 제시문 내용  |             |             |             |      |   |   |      |    |
|   | <p>다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간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실험결과이다. 인구수와 기타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두 마을(마을 1, 마을 2)을 선정하였다. 특정일부터 각 마을의 기부자 명단을 해당 마을신문에 공개하였고, 도로에는 두 마을 모두 CCTV를 설치하였다. &lt;그림 1&gt;과 &lt;그림 2&gt;는 이후 3개월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p> <p>&lt;그림 1&gt;</p> <table border="1"> <caption>Figure 1: 100명당 기부 횟수</caption> <thead> <tr> <th>마을</th> <th>기부자 명단 공개 전</th> <th>기부자 명단 공개 후</th> </tr> </thead> <tbody> <tr> <td>마을 1</td> <td>7</td> <td>8</td> </tr> <tr> <td>마을 2</td> <td>10</td> <td>10</td> </tr> </tbody> </table> <p>&lt;그림 2&gt;</p> | 마을          | 기부자 명단 공개 전 | 기부자 명단 공개 후 | 마을 1 | 7 | 8 | 마을 2 | 10 |
| 마을  | 기부자 명단 공개 전   | 기부자 명단 공개 후 |             |             |      |   |   |      |    |
| 마을 1  | 7   | 8           |             |             |      |   |   |      |    |
| 마을 2  | 10  | 10          |             |             |      |   |   |      |    |



기준에 따른 독해

(라)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마을 2보다 마을 1에서 더 크다. 마을 2의 경우 기부자 명단 공개 전과 후에 100명 당 기부 횟수는 변함이 없었으나 마을 1의 경우 6명에서 7명으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마을 2의 경우 CCTV 설치 전과 후에 따른 100명 당 신고위반 횟수가 1건밖에 차이 나지 않았으나, 마을 1의 경우 11건에서 6건으로 5건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의 시선에 대한 반응은 자발적 선행보다는 의무준수를 유도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기부자 명단 공개 전 후의 마을 1과 마을 2의 행동 변화의 폭보다 CCTV 설치 전후에 따른 마을 1과 마을 2의 행동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3) (가), (나)로써 (라)의 자료에 대한 해석

|     |   |
|-----|---|
| (가) | (가)는 사람의 진정성은 내면의 진실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이에 의할 때 마을 2가 기부자 명단 공개 전과 후에 기부 횟수의 차이가 없었던 점이 명확하게 설명된다. 외부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충실함을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2가 CCTV 설치 전과 후에 따른 변화도 거의 없었던 점 또한 내면의 충실함을 따른 결과라고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 1의 경우에는 기부자 명단 공개, CCTV 설치 전과 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컸는데, 이는 내면의 진정성을 갖춘 사람의 수가 마을 2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행동 양상을 변화시켰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 (나) | (나)는 (가)와 달리 사람됨을 외면적 자아에 의해 평가한다. 내면의 자아는 내심의 영역이기에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의할 때 정책에 따른 효과가 마을 1의 사람들의 진정성을 크게 강화시켰다고 판단할 것이다. 외부조건에 따라 행동 양상을 바꾸게 된 것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2의   |

|            |   |
|------------|---|
|            | <p>경우에는 기부자 명단 공개 전과 후에는 마을 1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많았으나, 진정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마을 1보다 부족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마을 1보다 앞서 있던 기부 횟수 또한 역전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외적 행위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수가 마을 1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p>  |
| 4) 답안 작성하기 |   |
| 1문단        | <p>(라)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마을 2보다 마을 1에서 더 크다. 마을 2의 경우 기부자 명단 공개 전과 후에 100명 당 기부 횟수는 변함이 없었으나 마을 1의 경우 6명에서 7명으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마을 2의 경우 CCTV 설치 전과 후에 따른 100명 당 신호위반 횟수가 1건밖에 차이하지 않았으나, 마을 1의 경우 11건에서 6건으로 5건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의 시선에 대한 반응은 자발적 선행보다는 의무준수를 유도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기부자 명단 공개 전 후의 마을 1과 마을 2의 행동 변화의 폭보다 CCTV 설치 전후에 따른 마을 1과 마을 2의 행동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p> |
| 2문단        | <p>(가)는 사람의 진정성은 내면의 진실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이에 의할 때 마을 2가 기부자 명단 공개 전과 후에 기부 횟수의 차이가 없었던 점이 명확하게 설명된다. 외부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충실함을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2가 CCTV 설치 전과 후에 따른 변화도 거의 없었던 점 또한 내면의 충실함을 따른 결과라고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 1의 경우에는 기부자 명단 공개, CCTV 설치 전과 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컸는데, 이는 내면의 진정성을 갖춘 사람의 수가 마을 2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행동 양상을 변화시켰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p>                          |
| 3문단        | <p>(나)는 (가)와 달리 사람됨을 외면적 자아에 의해 평가한다. 내면의 자아는 내심의 영역이기에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의할 때 정책에 따른 효과가 마을 1의 사람들의 진정성을 크게 강화시켰다고 판단할 것이다. 외부조건에 따라 행동 양상을 바꾸게 된 것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2의 경우에는 기부자 명단 공개 전과 후에는 마을 1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많았으나, 진정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마을 1보다 부족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마을 1보다 앞서 있던 기부 횟수 또한 역전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외적 행위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수가 마을 1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p>                            |